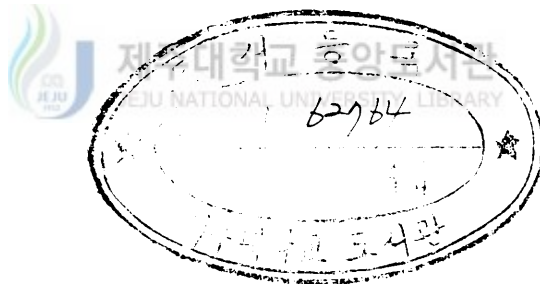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中學校 英語教材의 文化內容 分析

指導教授 黃 彦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高 貞 烈

1993年 2月

中學校 英語教材의 文化內容 分析

指導教授 黃 彦 澤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高 貞 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高貞烈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高 泰 洪



審査委員

黃 彦 澤



審査委員

高 貞 烈



<抄錄>

中學校 英語教材의 文化內容 分析

高 貞 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黃 彦 澤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개념 및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행 중학교 5종 교과서에서 目標文化(target culture)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必要하다. 첫째,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시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必要하다. 둘째, 학습자들은 지금까지의 제한된 경험만으로는 외국문화를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지나친 호의나 적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문화적 제한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이해하는데 必要하다. 셋째, 자국문화와 외국문화를 비교하면서 자국문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여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는데 必要하다.

결론적으로 교과서의 문화내용은 학습자들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 자국문화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자국문화를 객관적으로 판단, 재조명하고, 외국문화를 바르게 수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판단을 불식함과 동시에 外國文化의 부분별한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목 차

I. 서론	1	6
II. 언어와 문화	3	9
1. 문화의 정의	3	
2.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6	
III. 문화 교육의 필요성	10	5
IV. 한·영미 문화의 비교	16	21
1. 심층적 의식구조	16	21
2. 표면적 생활 양식	20	24
3. 사회 관습	22	27
4. 언어에 나타난 속담	29	30
V.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34	39
1. 교과서의 역할	34	39
2.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38	43
VI. 영어 교과서 개편을 위한 제언	58	63
1. 사계절	58	63
2.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	61	66
VII. 결 론	76	81
참고문헌	78	83
Abstract	81	86
부 록	83	88

표 목 차

〈표 1〉 현장 교사들의 교과서관	35
〈표 2〉 교과서를 내용대로 가르치는 이유	36
〈표 3〉 부교재 및 보조 학습 자료 개발 보급의 필요성	36
〈표 4〉 교과서 국적별 분석(1학년)	39
〈표 5〉 교과서 국적별 분석(2학년)	39
〈표 6〉 교과서 국적별 분석(3학년)	39
〈표 7〉 주제 내용 분석(교학사 A)	41
〈표 8〉 주제 내용 분석(교학사 B)	42
〈표 9〉 주제 내용 분석(동아출판사)	42
〈표 10〉 주제 내용 분석(지학사)	43
〈표 11〉 주제 내용 분석(태림출판사)	43
〈표 12〉 주제별 분석 통계	44
〈표 13〉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	62
〈표 14〉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 반응 결과	63
〈표 15〉 반응 결과(중학교 1학년 남학생)	69
〈표 16〉 반응 결과(중학교 1학년 여학생)	70
〈표 17〉 반응 결과(중학교 2학년 남학생)	71
〈표 18〉 반응 결과(중학교 2학년 여학생)	72
〈표 19〉 반응 결과(중학교 3학년 남학생)	73
〈표 20〉 반응 결과(중학교 3학년 여학생)	74

I. 서 론

'영어를 잘 가르친다', 또는 '영어를 잘 배웠다'라고 말할수 있는 상황은 어떤것일까? 아주 명확한 것 같으면서도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를 살펴 보면 언어의 4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기르며, 외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민의 독특한 문자자체라는 의미를 넘어선 그 언어 사용국민의 가치관, 사고방식의 한 표현이며 그들의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언어의 4기능 습득 또한 잘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한 영 두언어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Jespersion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 가운데 目標文化(target culture)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며, 언어학습에 있어서 문화이해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highest purpose in the teaching of languages may perhaps be said to be the access to the best thoughts and institutions of a foreign nation, its literature culture — in short, the spirit of the nation in the widest sense of the word¹⁾

1) Jespersen, Otto(1956), *How to Teach Foreign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9.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학교 영어교육목표에 나타나 있는 영어 상용국민들의 사고방식 및 생활태도를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여, 교과서 내용의 개선책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흥미있는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3장은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한·영미 문화를 비교해 보겠다. 제5장에서는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문화내용을 국적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어교과서 개편을 위한 제언을 생각해 보고, 끝으로 제7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언어와 문화

1. 문화의 정의

문화란 지도와 같은 것이다. 지도의 특성이 추상성에 있듯이 문화의 특성도 추상성에 있다. 지도가 아무리 추상적이라고는 해도 정확한 지도의 제작이 가능하듯이, 추상적인 문화도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 정확한 지도를 가진다음 그것을 읽는 방법을 알면 결코 길을 잃지 않듯이, 잘 서술된 문화를 배워서 이해하기만 하면, 그 문화속에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Tinsley, Jr. 은 외국어 교사에게 문화의 의미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도대체 문화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까지 문화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국어사전에 소개된 문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문화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학문·예술·도덕·종교등 물질적인 문명에 대하여 특히 인간의 내적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 정의되고 있다²⁾.

Brooks는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문화의 정의를 다섯가지로 나누고 있다.

문화1 (Culture 1) - 생물학적성장 면 (biological growth)

문화2 (Culture 2) - 개인의 교양 (personal refinement)

2) 신기철 외(1981),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p.1248.

문화3 (Culture 3) - 문학과 예술적인 면 (Literatur
and the fine art)

문화4 (Culture 4) - 생활양식 (Patterns for living)

문화5 (Culture 5) - 생활양식의 총화 (the sum total of a way of
life)³⁾

이 중에서도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4는 다시 形式文化와 深層文化로 세분되며 형식문화는 문화2와 관련된 것으로 사고, 사상, 행동에 있어서의 세련미, 문화3과 관련된 것으로 예술적 능력의 소산, 문화5와 관련하여 영웅적 정신, 경제적 노력, 정치, 종교 등에 관련된 것이며, 심층문화는 말하는 방법, 식사방법, 동작, 생활양식, 가치관 등 생활 유형을 일컫는다고 말하고 있다.⁴⁾

따라서, 양식(pattern)이란, 어떤 개인의 행동들이 그가 속한 집단의 승인을 받을때, 그 승인된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교사들은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문화4에 국한하여 가르치다가, 점차 문화3와 문화5를 포함시키면 바람직한 문화교육이 될 것이다.

Tinsley, Jr는 문화를 세단계로 구분하고 그 문화의 정의를 각각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A단계. 외적인 또는 물질적인 요소 : 건물, 대중교통수단, 의상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문화

3) Brooks, Nelson(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pp.8-11.

4) 신용진(1985), 「영어 교육 공학I」, 준지각, p.393.

이다.

B단계. 사회와 기관 : 가족, 종교, 교육, 정부, 경제제도, 단체 활동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의식적인 관찰과 연구로 그 문화와 접함으로써만이 가능하지만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부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C단계. 일반적인 관습, 믿음, 욕망을 통제하는 심리와 가치등을 이해한다. 이 단계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C단계는 B단계의 이해보다 더 위에 존재한다.⁵⁾

Chastain은 인류 언어학적 차원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영역은 지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 1) 학생들의 활동, 2) 회서, 3) 학생들의 사고, 4) 금전, 5) 식사및 음료, 6) 여가 활동, 7) 경력, 8) 행복, 9) 성공, 10)부모, 11) 젊은이의 부모관, 12) 남성, 여성의 사회적 역할, 13) 가족, 14) 친위, 15) 청춘, 16) 애정과 결혼, 17) 결혼, 18) 친구, 19) 사회제도, 20) 세대차, 21) 약품, 22) 정치관여 문제, 23) 경제체제, 24) 애국심, 25) 여성의 자유, 26) 전쟁과 평화, 27) 변화와진보, 28) 인구, 29) 종교, 30) 신문, 31) 죽음, 32) 의상, 33) 통신 등이다. 따라서, Brooks 가 분류한 문화중에서 문화4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화를 가르치는 시기에 관하여 Hendon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에 적

5) 박상옥(1982), "문화 교육의 의의와 방법의 문제점", 「영어 교육」 제 23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36.

6) 신용진(1985), 前揭書, p.393.

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일찌기 배워지기 때문에, 외국어 지도의 시초부터 그들의 생활양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았다. 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정리하면,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이룩해 놓은 목표언어(target language)사용자들의 업적이다. 또한, 그들이 이룩해 놓은 사고방식, 생활양식, 예술, 풍습 등 일체의 생활양식이기도 하다. 전자는 주로 과거의 유산을 후자는 현재의 생활을 다룬 것으로서, 문화교육에서는 주로 후자의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흥미와 생활영역을 고려한 내용을 선택해야 하겠다.

2.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언어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중의 하나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언어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그들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며 그들 집단내에서 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들은 '소리'로서 그들 세계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체계를 이용한다. 그들은 소리를 내면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전달매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개미와 같은 곤충들은 특유의 화학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고 있다.

이와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방법과 형태만이 차이가 있을 뿐 자신들의 감정이나 정보전달을 위해 그들 고유의 전달매체를 이용한다.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와 같이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身體言語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주로 그들의 의사전달 매개체로 사용하고, 또한, 다른 생물들과 구별지을 수 있는 가장 특징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언어이다. 언어를 이용함으로써 인간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무수히 많은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는 새들이나 곤충들과 같은 여타의 생물체들이 이용하는 매개체만큼이나 각기 다르고 독특한 언어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는 외형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순한 차원의 문자체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즉,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수히 다양한 언어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까지도 대변하는 독특한 생명력을 지닌 산물이다. 일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주변인들과 동일한 언어 구조, 규칙성, 발음, 억양, 어휘 등 그들 고유의 언어적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비슷한 감정과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언어와 사고 또는 문화와의 관계성은 Sapir-Whorf가설에 잘 나타나 있다. 남기십, 이정민, 이홍배는 이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 즉, 언어는 일반적인 좌표계가 되어 그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그 틀에 맞게 형성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문법구조, 범주, 활용, 時相 및 어휘는 그 사용자들의 사고 및 문화형태를 반영하고 양자간에는 연계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영어의 색에 대한 어휘를 살펴보자. 한국어에는

7) 남기십 외(1983), 「언어학 개론」, 탑출판사, pp. 319-20.

색에 대한 다양한 어휘가 있으며 그 어휘들은 영어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다소간의 의미의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안다. 영어의 'blue, yellow'로 대변될 수 있는 낱말이 우리말에는 '푸르다',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라고 표현되거나 '노랗다', '누렇', '노르스름하다' 하는 다양한 어휘가 있다. 이는 영어 사용국민과 우리나라 사람들간의 색채 감각에 대한 차이가 있는 사고체계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단지 어휘에 포함된 의미의 차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어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배열되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句나 文章을 형성할 때도 역시 특정언어에 따라 독특한 쓰임새를 나타내며 그러한 언어의 쓰임새를 통하여서도 언어 사용국민의 의식과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상용국민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름표기나 주소기입법은 각기 다른 면을 보인다. 한국인은 姓을 앞에 기입하고, 이름을 뒤에 기입하는데, 미국인은 이름을 앞에 쓰고 姓을 뒤에 쓴다. 이와같은 표기법을 통해서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서의 '나' 보다는 혈육과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자아를 의식하는 유교적 사고체제를 알 수 있고, 또, 독자적이며 자율적인 개체로서의 개인을 생각하는 미국인의 개인주의적 의식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어는 단어 그 자체에서 뿐 아니라 단어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Nelson의 주장과 같이, 언어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며, 다른 문화체계와 가치등 문화적 총체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Language is the most typical, the most representative, and the most central element in any culture. Language and culture are not separable; it is better to se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 language as cultural entities and to recognize that language enters into the learning and use of nearly all other cultural elements.⁸⁾

이러한 단어나 그 어휘의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특히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부터 필수적이며 따라야 할 요소이다.

언어는 지금까지 서술한 특징이외에 특정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쌓아 온 문화적 유산과 현재 그들의 다양한 문화양상을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언어를 매개로 하여 그 언어 사용국민들의 문화적 총체는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어는 창조된 문화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전달자나 표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의 형식이나 문자화된 글의 표현으로 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이 소개됨으로써 外國語 學習者는 간접적으로나마 색다른 문화패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언어가 다른 문화적 특징들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므로 언어학습에서도 이러한 것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外國語 學習者가 직접적으로外國文化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를 소개해줌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외국문화를 경험케 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8) Nelson(1964), *op. cit.*, p. 85.

Ⅲ. 문화 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교육의 교과목표를 살펴보면, 쉬운 영어를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길러,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우리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교과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부분은 「외국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우리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결국,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와 언어기술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Wilga M. Rivers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7개의 향으로 나누고있다.

- 첫째, 외국어 학습을 통하여 지능을 발전시킨다.
- 둘째, 위대한 문학의 학습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철학의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교양을 높인다.
- 셋째, 언어의 기능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외국어의 학습을 통하여 모국어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킨다.
- 넷째, 외국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현대의 작품, 연구, 정보 등을 항상 알고 있게 한다.
- 다섯째, 학생들이 또다른 언어적, 문화적 틀 안에서 자신을 표현해보는 경험을 갖게한다.

여섯째, 목표언어를 상용하는 국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하여 타국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일곱째, 외국인 및 그 言語를 외국어로 배운 다른 외국인과 구두 또는 어느 정도까지는 글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와같이 Rivers가 제시한 목표에서도 언어의 4기능을 개발하고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영어교과에서 언어의 4기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외국문화의 이해에 목표를 두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문화충격(culture shock)과 문화예속(culture bound)의 뜻을 음미해 보자.

Tinsley는 어느 한 개인의 익숙해져 있는 게임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괴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받는 감정을 문화충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rown은 한 문화권내에서만 움매어 세계를 보는 가치기준이 형성된 사람은 그와는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문화에 예속된 사람이라고 한다.

문화예속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문화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예를들면,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미국인이 관광차 한국에 왔다면, 도시의 골목골목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웬 동성연애자들이 저렇게 많은가 생각하며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성(sex)과 관련시키기 때문이다. 문화에 예속된 사람이 되지 않고, 우

9) Wilga M. Rivers(1968),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University Press, p.8.

리 자신의 문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배우는 것이라고 기술할 수 있겠다¹⁰⁾.

그러면 문화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Seelye(1976)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Seelye의 견해

Seelye는 문화교육은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의 목적을 다음 7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번째 목적: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지각하거나 기능화 한다. 사람들의 그들식대로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인 육체적, 심리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가 허용하는 선택적 요소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두번째 목적:

언어와 사회적 변이 (social variables)의 상관을 이해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이로 나이, 성별, 사회계급, 거주지 등을 들 수 있다.

세번째 목적:

일상생활에서 양식화 된 행동(conventional behavior)을 이해한다. 학생들은 가장 일상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식에 양식화된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네번째 목적:

10) 박상옥(1982), 前掲書, p.37.

단어와 구에 문화적으로 함축(cultural connotations)된 뜻을 이해한다. 문화적으로 규정된 이미지는 가장 일상적인 단어와 구에도 연결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다섯번째 목적:

진술을 구체화시키는 증거를 통해 목표문화의 일반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섯번째 목적:

다른 문화에 관하여 연구한다. 도서관, 대중매체와 개인적인 관찰을 통해서 목표문화(target culture)에 관한 정보를 찾고 조직화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연마한다.

일곱번째 목적:

목표문화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그 나라 사람들에 감정을 이해한다.”

Seelye는 이상 여섯번째까지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일곱번째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2. Chastain(1976)의 견해와 그 이외의 것

Chastain(1976)은 외국 문화지도의 목적을 간단한 용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1) 문화 상호간의 전달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2) 문화 상호간의 이해 (Intercultural understanding)

11) Wilga M. Rivers(1968), *op. cit.*, pp.323-324.

3) 학생 자신의 문화에서 그 기본적인 면에 대한 이해(realization of the basic aspects of the student's own culture)¹²⁾

특히 세번째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외국문화를 배우면서 얻을 수 있는 값진 소득이 된다. 즉, 학생들은 두 문화를 비교 대조하면서,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자기의 문화의 여러면을 새롭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Hendon에 의하면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통찰력(the insight)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develop the insight necessary to accept another culture, on its own terms, for what it means to the members of that culture.¹³⁾



Seelye와 Chastain가 말하는 문화교육의 목적외에 Hendon의 주장을 살펴 보자 .

·문화적인 소재(cultural materials)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많은 자료를 제공하므로, 동기(motivation)를 자극하게 된다. 외국어 교실 수업에서 문화를 포함시키면, 외국문화의 관련성(relevance)을 탐색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교를 마련해줄 수 있다."¹⁴⁾

12) Chastain Kenneth(1976),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pp.383-384.

13) Hendon, Ursula S.(1980), "Introduc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Vol. 13, No. 3, p.192.

14) 박상옥(1982), 前揭書, p.42.

Hendon의 주장에서 처럼 동기와 흥미가 언어학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을 알수 있다. 특히 영어에 대한 흥미가 학습자의 내부에서 오는 진정한 것일 때, 외부의 압력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경우와 성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내적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문화의 지도는 동기를 자극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문화교육은 첫째, 목표언어 사용자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을 모를 때에는,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므로 언어적 기능을 완벽하게 학습, 응용하는 데 필요하다. 둘째,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시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들은 지금까지의 제한된 경험으로는 외국문화를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지나친 호의나 적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넷째는, 자국문화와 외국문화를 비교하면서, 자국문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여,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는 데 필요하다.

IV. 한·영미 문화의 비교

우리나라와 영어사용권 나라는 여러가지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로인해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은 두 언어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어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영어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화를 심층적 의식구조, 표면적 생활양식, 사회관습 그리고 속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심층적 의식구조

1) 의식 배경

우리문화는 농업의 문화요, 음양오행의 철학과 삼강오륜의 도덕관에 바탕을 둔 유교사상과 불교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모든일에 조화와 중용을 중시한다. 따라서, 인간상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대인관계를 중시한다. 개인보다 집단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가족중심적이다. 체면과 외형, 연고 관계, 주종관계, 서열, 배경, 자연등에 큰 비중을 두며, 향시 남의 눈치나 감정을 살핀다. 박명석은

"A Korean with developed sense of 'nunchi' is always sensitive to others"¹⁵⁾ 라고 말한다. 姓(family name)을 이름앞에 쓰고, 큰 지명부터 주

15) Park, Myung-Seok(1979),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Han Shin Publishing Co., p.76.

소표기를 하듯 일반적, 보편적 관념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자아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내 어머니' '내 집' 대신에 '우리 어머니' '우리집'을 즐겨쓴다.

한국인은 같은 혈통, 같은 문화, 같은 풍습을 지닌 단일 민족이다. 특히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또, 일정한 토지에 정착하여 촌락집단의 일원으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강한 개성도 발휘 못하고, 장유의 서열아래서 자기 주장도 펴지 못했다.

한편 미국인은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자유, 평등의 사상과 독립심이 강하다. 또, 그리스나 로마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하였다. 자연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모든일에 독립심이 강하며, 개인이 존중되고,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우세하다. 성명표기나 주소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이고 작은것에서 시작하여 큰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our country' 'our house'라는 표현보다 'my country' 'my house'를 즐겨쓰며 일상생활에서도 'I'를 강조한다.

2) 자연관

한국의 자연관은 불교의 영향으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 생각한다. 따라서, 살생을 삼가하고, 자연을 감상하며, 자연에 적응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려 한다. 이러한 자연관은 한국인의 수용적, 인종적 특성을 낳았다.

미국의 자연관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한다. 즉, 인간은 영혼을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며,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되고, 도전하고, 정복,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3) 연령관

한국에서는 나이 먹는다는 것이 풍부한 경험과 성숙한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나이가 많다는 조건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된다. 언제나 나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태도나 말씨를 결정하고, 초면이라도 서슴없이 나이를 물으며, 연령의 높고 낮음에 따른 언어표현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모든 사회활동이나 공식적 모임에서, 상대방의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 모임의 대표나 회장으로 추대한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영어와 같이 brother 나 sister와 같은 것은 없고, 형님, 동생, 누님, 아우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하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이를 묻는 것은 큰 실례가 되며, 연령에 따른 언어적 표현의 구별도 없다.

4) 여성관과 남성관

한국은 유교사상에 뿌리를 박은 부계중심의 관념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양육과정, 교육, 결혼, 취업등에 있어서 여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하여, 미국에서처럼, 남녀관계가 똑같은 일대일의 기반위에 놓여있지 않다. 남자는 직장에 나가며, 여자는 집안살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어렵다

출퇴근하는 남편의 코트를 입히고 받아 거는등 모든 행동에서 남성우위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는 부부는 항상평등한 입장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며, 집안살림도 역할을 분담한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코트를 입혀주거나 받아걸기도 하며,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앉을 때나 설 때에는 의자를 빼주며, 문을 드나들 때 여자를 먼저 가게하고, 길을 걸을 때 남자가 차도쪽에서 여자를 보호하며, 서로 소개할 때에도 남자를 여자에게 소개하

는 등 'ladies first'의 개념이 강하다.

5) 대인관계

한국인의 의식속에는 유교적 윤리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 언제나 한 쪽이 다른쪽보다 힘, 연령, 계급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수직적, 계층적 대인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가문, 친구, 지연, 혈연, 직장등의 테두리안에서는 체면과 예절을 중시하나, 다른 집단이나 초면의 사람에게는 지극히 배타적인 폐쇄성을 보인다. 한국인에게 'friend' (친구)의 개념은 그 범위가 아주 좁아 아는 사람중에서도 극소수가 친구이며, 친구사이에서는 모든면에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인간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대결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피한다. 가령 'Didn't you go to school yesterday?' 라고 할 때 안갔을 경우 영어 대답은 'No, I didn't.' 우리말은 '네, 가지 않았어요'가 된다. 즉, 영어의 'no'는 다음에 오는 답과 일치하는 대답이요, 우리말의 경우는, 서두부터 '네'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식구조에서 나온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논리적 언어보다 감정의 전달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침묵속에 나타나는 눈치나 태도, 표정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문화적 구조는 사회계약적 평등의 바탕위에 놓여있다. 개인적 의식이 강하며 보다 개방적이다. 설득력 있는 논지의 전개나 대화, 토의를 통해 생각이나 개념을 전달하는 일이 중시된다. 따라서 어떤형태로 물었던간에 내용의 긍정, 부정에 따라서 분명히 Yes/No로 대답한다. 초면·구면의 구별없이 어느 사람에게나 똑같은 친근감을 가지며, 초면이라도 서슴없이 서로 인사를 나눈다. 친구는 직장이나 취미 오락, 사회활동등을 단위로 해

서 만들어지며, 친구라 해서 서로의 생활의 모든면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의 개념이 우리보다 광범위하다. 잠깐 지나치는 아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생을 같이 사는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친구에 들어간다.

2. 표면적 생활 양식

1) 의생활

한국에서는 복장이외의 요소 즉, 학벌, 문벌, 직업등의 소속배경이나 수직적 인간관계내지 경제력등이 개인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복장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물론 '옷이 날개'란 말도 있지만, 같은 복장을 여러날 계속 입어도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며, 학교, 기업체, 관공서등에서는 制服을 많이 입는다.

미국에서는 사회구조가 복잡적이고 다양하며 유동적이어서 복장의 역할이 크다. 복장이 당장 개인의 평가척도가 되기때문에, 비록 간편(simplicity) 과 비형식(imformality)을 좋아하지만, 의복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다. 연령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복장으로서 자기의 개성과 인격을 나타내려 한다.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Clothes make the man." 등의 속담도 미국인의 옷차림에 대한 관심을 말해준다.

2) 식생활

한국의 식생활은 쌀과 채소가 주식인 식물성을 먹는다. 밥 김치 국을 많이 먹으며,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한다. 먹는 사람의 의사가 무시된 채 주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것저것 한상에 차려서 함께 먹으며, 양념과 간도

다되어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성이 무시된 통일성이 강한 식생활의 결과로서 미리 국과 밥을 말아서 내놓는 곰탕, 갈비탕, 대구탕, 추어탕 등 탕 종류가 발달해 있다. 또한, 하루 세끼중에서 대개의 경우 아침을 가장 길게 먹고, 점심과 저녁은 비교적 가볍게 먹는다. 따라서, 생일이나 명절 등의 날에는 아침에 성찬을 먹는다.

미국의 식생활은 빵과 육류가 주가되며,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다.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의 접시에 옮겨다 먹고, 선택권의 범위가 넓어서, 수프, 술 등의 종류뿐만 아니라 육류, 달걀, 커피 등도 일일이 요리의 방법을 물어서 희망대로 제공한다. 가령,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경우는 설익은(rare), 中間(medium), 잘익은(well-done) 등으로, coffee의 경우는 regular(크림을 많이 넣은 것), black(크림을 넣지 않은 것), dark(크림을 약간 넣은 것) 등으로 하고 계란의 경우 반숙(sunny-side up), 버터나 우유 따위와 뒤 섞어서 익힘(scrambled), 삶은 계란(boiled)등으로 요구하며,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도 제시한다. 음식물은 양념과 간이 안되어 있어서 먹는 사람이 자기 식성에 맞춘다. 도시지역에서는 저녁을, 농촌지역에서는 점심을 길게 먹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일파티나 크리스마스 파티등도 저녁이나 점심시간에 갖는다.

3) 주생활

한국의 주택은 그 구조를 보면, 대문이 크고 담장이 높아 폐쇄적, 방어적, 비개방적이지만, 일단 집안에 들어가면, 각방 사이의 구별이 그리 엄하지 않아, 가족들간의 접근이 쉽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집단 특히 가정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집안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게 돼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곳이면 어디나 집밖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공공기관이나 열차, 버스내부도 길거리처럼 생각하기 쉽다. 주택의 매매, 임대등에 대한 정보나 소개는 대부분 복덕방이 맡는다.

미국의 주택구조는 개방적이어서 대문이 없고 담장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접근은 쉽지만,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각방 사이의 구분이 엄격하다. 바로 개인의 독립성과 개성이 존중됨을 보여준다. 즉, 건물구조가 집단위가 아니고 방 단위이기 때문에, 이웃집도 next house 하지않고 next door 라 한다. 그리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신발을 신고 다닌다. 주택의 매매나 임대의 정보는 주로 지방신문의 광고란에 의존한다. 또한 미국 주택의 특색은 확실적이어서 어느 도시에 가나 모두가 서로 비슷하게 남아 있다.

3. 사회 관습

여기서는 한·영미 두 문화에서 관찰되는 수 많은 사회적 습관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중에서도 특히 대조적인 유형의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몸짓 및 표정

한국인의 표정은 대체로 굳어 있고, 모르는 사이인 경우는 냉랭하고 무표정하다. 한편 미국인들은 서로 적정한 거리(21inch)를 유지하며 이야기하는데, 이는 安心地帶(comfort zone)을 무시하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私生活의 침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돈'을 상징하는 동작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좋은 상황에서는 OK의 의미로, 나쁜 상황에서는 성적인 모욕의 표현이 된다.

②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손을 오무렸다가 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부르는 표시, 미국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부르는 표시가 된다.

③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로, 집게 손가락만 오무렸다가 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위협적으로 사람을 부르거나 어린이나 동물을 부르는데 사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사람을 부르는데 사용한다.

④ 「검지와 장지를 꼬아 십자가를 만들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표현이지만, 미국에서는 무언가 좋은 일을 기대하며, 기원하거나, 맹세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행운을 빈다는 뜻이다.

⑤ 「양손을 벌리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어깨를 움츠리며 치켜올린다」: 미국에서는 "모른다"의 의미로 한정된다.

⑥ 「손바닥으로 이마를 친다」: 미국에서는 무언가에 놀랐을 때나 잊어버렸을 때 사용한다.

⑦ 「엄지 손가락을 수직으로 세워서 내민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최고 1등, 대장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승리나 만족을 나타낸다.

⑧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속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런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애인, 여자친구, 첩등의 의미로, 미국에서는 계집애 같은 남자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⑨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인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승리 또는 평화의 상징으로 쓰인다. 영국에서는 손등을 상대방에게 향하게 하면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⑩ 「손가락을 깨문다」: 우리에게서는 대개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거나 망설일 때 쓰는 이 동작은, 미국인들에게는 불안의 상징으로 주로 이해되고 있다. 걱정이 될 때, 신경질적일 때, 이런 제스처를 쓴다.

⑩ 「솟하는 소리(hissing)를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내의 정숙을 바라는 연사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연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야유의 의사 표시가 된다.

이상 열거한 제스처 외에도 여러가지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는데 필요하다.

2) 성명 및 호칭

한국에서는 집단 의식이 매우 강해서, 성명의 순서에서도 집단을 나타내는 姓이 먼저 온다. 또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존칭어가 매우 발달하여, 성 다음에 직위, 학위등의 호칭이나 '님', '씨', '선생님' 등을 첨가해서 사용한다. 또 여자는 결혼 후에도 시가집 성을 따르지 않고 친가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데 박명석은 이것을 부계형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증거¹⁶⁾ 라고 말한다. 남편이 자기 부인을 '안사람', '집사람' 등의 말로 부르고, 부인이 남편을 '주인', '바깥양방', 등으로 부르는 것은 한국적 남성관과 여성관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일단 결혼을 하면 '~양'의 호칭을 상실하고, 이혼을 하여도 '~양'의 호칭을 되찾지 못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성명표기를 이름(first name)+ 中間이름(middle name)+ 姓(last name)의 순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서열의 개념이 희박하여 조금만 친해지면 'Just call me Henry .'란 식으로 이름(first name)을 불러 주기를 바란다. 직업에 관련있는 호칭으로서 외교관 (Ambassador Jones), 판사(Judge Harley), 군장정(General Clark), 의사·교수(Dr. Brown), 성직자 (Father White)등이 자주 쓰이는 편

16) 박명석(1979), 上揭書, p.44.

이고, 그밖에는 모두 Mr. ... , Mrs. ... , Miss ... 로 부른다. 여자가 일단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고, 여자가 이혼을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시 "Miss..."의 호칭을 되찾는다.

3) 식사예절

한국인들은 어른이나 연장자가 먹기 시작할 때 같이 먹으며, 식사중에는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다. 식사중이나 식후에 트림, 딸꾹질, 기침 따위는 하여도 상관없으나, 코를 푸 행위는 예의를 어긋난 것이므로 삼가한다. 한국인들에게 혼한 이쑤시개 사용은 무난하다. 음식점에서 여럿이 둘러 앉아 먹을 때, 접시에 남은 고기한점은 아무도 먹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이 규태는 한국인의 집단을 위한 자기 희생정신에 기인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식사중에 즐겁게 담소하는 것이 보통이며, 식사중에 트림, 딸꾹질, 기침등을 하는 것은 실례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Excuse me!"라고 사과한다. 그리고 재채기와 같은 생리현상에서도 "God bless you!"라는 표현을 잊지 않는다.

4) 음주 풍습

한국인의 경우 술집에 간다는 것이 술을 즐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교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술보다 안주를 중요시하고 결코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지 않으며, 술잔을 돌린다. 이때 술잔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므로 마시고 싶지 않더라도 마시는 시늉이라도 낸다. 그리고 어른이 주는 술잔을 한쪽으로 돌아 앉아서 마셔야 한다. 술집에는 남자들만이 가는 것이 상식이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접대부로 하여 술 따르게 하는 일과 가부등을 하도록 하여, 흥을 돋우고 시끄러운 분위기를 즐긴

다.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제2, 제3의 파티를 갖는 경우도 많다. 술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고, 안주가 다양하며, 접대부에 대한 팁을 잊지 않는다.

한편 미국에서는 술 자체를 즐기며, 별다른 안주없이 자기가 직접 부어 마신다. 남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권하지 않는다. 술값은 각자 부담하며, 술집에는 여자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고, 술의 종류도 다양하다.

5) 시간 관념

시간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 하면 쉽게 미국인들이 연상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한번은 미국의 국민학교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실에 들어서면 순간 벽에 붙어있는 수업시간표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1교시 07:58 ~ 08:42, 제2교시 08:50 ~ 09:39 ...」대충 이런식으로 시간표가 짜여진 것이다.

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1분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교육을 받아온 그들이기에 일상생활에서 한두명을 위해 이미 계획된 시간을 늦추는 경우가 거의 없다. Time is gold., Time is money. 와 같은 속담도 시간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보여준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급료가 대부분 시간급으로 계산되어 지불되는데 이것도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6) 손님 초대

우리나라에서는 초대의 목적이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는데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더 값진 요리를 준비하여 손님들이 귀찮아 할 정도까지 권한다. 주인은 진수성찬을 내놓고도 차린것이 없다면서 겸손해 한다. 하루 이틀 전이나 당일에 직접 구두로 혹은 전화로 자연스럽게 초대하고 초대를 받으

면 일단 사양하는 것이 예의다. 그리고 복장이나 초대절차등에 있어서는 그다지 격식을 따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인들의 초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음식보다 대화나 담소의 기회로 여기며, 아무리 간소한 초대라 할지라도 1,2주일 전에 인쇄된 초청장으로 통지를 하고, 참석여부의 회신을 요구한다. 초대시간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는데, 초대시간을 해석하는 데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파티는 순전히 성인들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부동반으로 참석한다.

극히 公式的인한 경우에는 초대장에 명시된 복장을 해야한다. 초대의 종류가 非公式的에서 부터 公式的까지 다양하며 음식도 파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7) 팁주기



한국에서는 술집, 미장원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팁을 주지 아니한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웨이터, 택시기사, 포터, 이발사, 미용사, 구두닦기 등이 일반적으로 팁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만큼 급료가 적다. 팁의 액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손님이 지불하는 전액의 15~20%가 표준이다. 단, cafeteria, lunch counter, drugstore 등에서는 팁을 주지 않는다.

8) 선물

한국인은 겸손과 사양이 미덕이어서, 선물을 받을 때 일단 사양한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면전에서 개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은 나중에 혼자 있을때 개봉한다. 그러나 솔직성이 숭상되는 미국에서는

선물을 준 사람의 면전에서 개봉함으로써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사양하는 일 없이 기꺼이 받는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에만 주고 받는다.

9) 私生活(Privacy)

한국인은 私生活에 대해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상대방과 친근감을 갖고 싶기 때문에, 상대의 월급, 결혼 여부등을 물어보는 것이 실례로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연령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서슴치 않고 묻는다. 그러나 며느리 방을 지날때나 화장실 사용중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기침으로 노크를 대신한다. 이것은 과거에 한국의 주택구조가 창호지문으로 된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초면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시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공세를 퍼붓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私生活의 침해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정면으로 마주 앉아 상대방의 시선을 직시하는 것이 예의이다. 그리고 노크를 함으로써 방안에 있는 사람의 私生活을 존중하는데 이것은 판자 門이 많은 서구식 주택 구조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미국인들과의 초면대화에서 삼가해야 할 질문 다섯가지를 소개한다.

1. How old are you ?
2. Are you married ?
3. How much do you weigh ?
4. How much do you get paid ?
5. What's your religion ?¹⁷⁾

17) KBS문화사업단(1992), 「KBS-FM 굿모닝 팝스」, 4월호, p.123.

10) 도장과 署名

한국에서는 각종 서류작성시나 은행예금을 청구할 때 등에서 도장을 사용한다. 직접 署名을 하지않고 도장을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에 사용하던 붓이나 먹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동산의 매매등 중요한 문서에는 행정관서에 등록 된 인감을 사용한다.

미국인들은 대개의 경우, 서명만 하면 되기때문에, 타인이 모방할 수 없도록 보통 독특한 필치로 쓴다. 중요한 계약서나 증서의 경우만 서명과 함께 도장을 사용했다.

이밖에 미국인의 행동 특색의 하나로서 왼손잡이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돈세는 방법이 특이하다. 즉, 지폐를 모두 왼손에 쥘다음 오른손으로 한장 한장 들어내면서 센다. 거스름돈을 내줄때에는 물건값에다 잔돈부터 더해가면서 차츰 고액지폐를 더해서 총액을 맞추어 준다. 돈다발의 끝을 묶어쥐고 다른 끝을 부채처럼 펴서 세거나 손에 침을 발라가며 세는 방법, 그리고 총액에서 물건값을 뺀 잔돈을 건네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4. 언어에 나타난 속담

우리나라와 영어 사용권 나라는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로인해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의 극복의 한 방안은 두 언어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영어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속담의 비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어 보편의 속담.

옛장수 마음대로

- Everyman in his humor.

냉수 마시고 이 쭈시기

- A proud heart and a beggar's purse go together.

굶어 부스럼

- Self do, self have.

각인 각색

- Several men, several minds.

떡 줄 놈은 생각도 얹는데 김치국부터 찾는다.

- Sell not the bear's skin before you have caught him.

아니 댐 굴뚝에 연기날까 ?

- There is no smoke without a fire.

- Common fame is seldom to blame.

한귀로 흘려라.

- They say so is half a lie.

웃어 치워라.

- The noblest vengeance is to forgive.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Walls have ears. Pitchers have ears.

- 열놈이 지켜도 한놈의 도적을 막지 못한다.
- One enemy can do more hurt than ten friends can do good.

一石二鳥

-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One journey and two errands.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 Bad news travels fast.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 Habit is a second nature.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One lie calls for many.

어부지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Two dogs fight for a bone and the third runs away with it.

여자가 셋이면 나무 접시가 드논다.

- Three geese and three women make up a market.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 Fresh fish and newcomer guests smell in three days.

空手來 空手去

- Six feet of earth make all men equal.

아니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 He would fall on his back and break his nose.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

-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2) 언어 특유의 속담

속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인류 전반에 보편적인 것이 있지만, 반면에 속담이 속하는 문화권에 특유한 것도 있다.

다음의 속담은 영어 문화권의 배금주의 사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Money makes the mare go. (cf.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 Money talks. (돈이 최고다.)
- Money is everything. (돈이 전부이다.)
- Money opens all doors. (돈이 만사를 해결한다.)
- All things yield to money. (모든 것이 돈에게 진다.)
- Money changes hands.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 Money will come and go.
- Money makes money. (돈이 돈을 낳는다.)
- Nothing is more eloquent than ready money. (현금보다 더 웅변적인 것은 없다.)
- Money is the sinews of war. (돈이 싸움의 밑천이다.)

다음은 도덕의식과 낙천주의, 그리고 양반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우리의 속담이다.

효자 끝에 불효 나고, 불효 끝에 효자 난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양반은 가는 데마다 상이요, 상놈은 가는 데마다 일이라.

이상에서 한·영미 문화를 비교해 보았는데 유부근은 두 문화를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다.¹⁸⁾

韓國的 文化要素	英·美式文化要素
불교 및 유교	기독교
추상적 사고	과학적 사고
계급적 세계관	민주적 세계관
전체주의· 획일성	개인주의· 다양성
체면 존중	실질 숭상
폐쇄적	개방적
무비판적	비판적
남존여비	여성우선
관념적	논리적
관습존중	편의주의
연령차 중시	연령차 경시
정적	지적
법질서 경시	법질서 중시
권위주의	종다수주의
노동경시	노동중시
약속시간경시	약속시간 엄수



18) 유부근(1980), '외국어 교육과 문화이해의 문제', 『영어교육』 제 20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3.

V.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1. 교과서의 역할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 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한·영미 문화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外國 文化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무엇을 통하여 전달되는가?

어느나라에서든지 모든 교육에는 반드시 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된 여러가지 교육자료 즉, 교재가 있다. 교재는 제시된 교육목적을 효과적이며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요수단이다. 따라서 교재를 통하여 학습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교재는 수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조석주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교재를 분류한다.¹⁹⁾

- (1) Visual : 교과서, 사진, 그림, OHP, 실물
- (2) Audible : 녹음기, 라디오
- (3) Audio - Visual : VTR, TV, 영화

이렇게 다양한 교재들이 수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교수, 학습 능력은 커질 것이며,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효과를 얻게

19) 조석주(1978), '바람직한 영어교과서상', 「어학교육」, 9집, p. 40.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다양한 교재 가운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자료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다름아닌 교과서이다. '교과서관'에 대한 교사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²⁰⁾, 먼저 '교과서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교과서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중의 하나'라고 대답한 교사가 전체의 40%이며, 교과서는 유일무이한 교수, 학습자료라고 응답한 교사는 56% 였다.

〈표 1〉 현장 교사들의 교과서관

()안은 %

구분 내용	중 학교 교사
유일 무이한 교수 학습자료	39(56)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 중의 하나	28(40)
기 타	3(4)
계	70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중학교 80.2%의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대로 가르친다'라고 응답했다. '왜 교과서대로 가르치느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2>에서 보듯이 '교과서 내용을 재조직할 능력이 없다'가 중학교 41%로 제일 많았다.

이와같은 조사를 볼 때, 중학교의 영어 교사 대부분이 능력, 시간, 평가 등의 문제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교과서를 교수·학습의 유일한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밝혀졌다

20) 연구보고(1986), '외국어교육 방법 개선연구', 정민사, p. 63.

〈표 2〉 교과서를 내용대로 가르치는 이유

이유 \ 교사구분	중 학교
교과서 내용을 재조직할 능력이 없다	23(41)
재조직할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없다	6(11)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평가에 손해 본다	22(39)
기 타	5(9)
계	56

〈표 3〉 부교재 및 보조 학습 자료 개발 보급의 필요성

교사구분 \ 필요성 정도	중 학교
절대 필요하다	56(80)
필요하다	10(14)
그저 그렇다	2(3)
필요없다	2(3)
계	70

그리고 '수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과서의 부교재 및 보조 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절대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중학교 교사가 80%였다. <표3>은 부교재 및 보조 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필요성에 관한 교사 의견 조사 결과이다.

전술된 내용에 의하면, 교과서는 학습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하는 교수내용과 방법을 알 수 있게하고, 때로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교수경향을 결정짓는 교육 목표 달성의 기본 매체이다.

영어 교과서도 외국어 교육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엄선된 내용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Joiner의 지적에서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외국문화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이 글로서 접하게 되는 외국문화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Perhaps the single most influential 'culture bearer' in the language classroom is the textbook. In it the student may find illustrations and reading selections which will reinforce his brief...²¹⁾

따라서, 교사들은 영미의 문화를 골고루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교재로 선택하여, 되도록이면 먼저 배워야하고 꼭 배워야 할 내용을 우선적으로 빼지 않고 넣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배워서 유익할 이야기나 표현이 나오면 그 이야기와 표현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넘어가는 아량을 가져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학교 영어교육 목표에 나타나 있는 영어사용 국민들의 사고방식 및 생활태도를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Joiner Elizabeth G. (1974), "Evaluating the Cultural Content of Foreign Language Texts", *Modern Language Journal* 56, p. 242.

2. 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현행 교과서들이 이러한 문화 교육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5종 교과서의 본문내용을 국적별, 주제별로 분석하려 한다.

1) 국적별 분류

국적별 분류를 통해서 외국문화 반영율이 각 교과서별로 나타난 분포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각 한국적 상황, 영미적 상황, 보편적 상황으로 나누었다.

한국적 상황에는 주로 한국의 역사, 예술, 사회적 업적등 한국의 문화를 그 대상으로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비록 영미작가가 그 내용을 소개했을지라도 그 소개가 한국을 소개한 경우에는 한국적 상황에 포함시켰다. 영미적 상황에는 영미 문화에 대한 내용뿐만아니라 간혹 등장하는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시켰다. 또한, 내용이 보편적 주제일지라도 서구의 편지양식을 소개하고 있는 단원은 이 부분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영어민의 이름이나 지역이 등장하고 영미작가가 그 내용을 소개했을지라도,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관계없는 인간의 선, 악, 정서, 계절에 대한 찬미의 내용은 보편적 상황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각 교과서별로 분포상황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표 4〉 교과서 국적별 분석(1학년)

(숫자는 Lesson, () 의 숫자는 지)

구분 \ 학년	1				
	교학사A	교학사B	동아출판사	지학사	태림출판사
보편적(공통) 상황	1. 2. 3. 4. 5. 6. 7 8. 9(69)	1. 2. 3. 4 5. 6. 7. 8 12(69)	1. 2. 4. 6. 10 (38)	1. 2. 3. 4. 6. 7 8. 9. 10 11. 12. 13 (93)	1. 2. 3. 4. 6. 7. 8. 10. 11. 13 14. 15. 16 (81)
한국적 상황	11. 12 (15)	9. 10. 11 (23)	3. 5. 7. 11. 12 (38)	14(7)	12 (6)
영미적상황	10. 13 (15)	13 (8)	8. 9. 13 (23)		5. 9 (13)

〈표 5〉 교과서 국적별 분석(2학년)

구분 \ 학년	2				
	교학사A	교학사B	동아출판사	지학사	태림출판사
보편적(공통) 상황	1. 2. 3. 4. 6. 7 9(54)	1. 2. 3. 4 5. 6. 7. 8 13(77)	1. 2. 3. 5. 6. 7. 8. 9. 10. 11 12. 13 (92)	1. 2. 3. 4. 5. 6. 7 8. 9 11. 13 (85)	1. 2. 3. 4. 6. 7. 8. 9. 11. 12 13. 14. 15. 16 (94)
한국적 상황	5. 13 (15)	10. 12 (15)	4 (8)	10(8)	
영미적상황	8. 10. 11 12(31)	11 (8)		12(8)	10 (6)

〈표 6〉 교과서 국적별 분석(3학년)

구분 \ 학년	3				
	교학사A	교학사B	동아출판사	지학사	태림출판사
보편적(공통) 상황	2. 3. 4. 6. 10 13 (46)	1. 2. 3. 4 5. 6. 7. 8 9. 11(77)	1. 2. 3. 4. 6 7. 9. 10. 11 12 (83)	3. 6. 7. 8. 9. 11 (50)	1. 2. 5. 6. 7. 8. 9. 10. 12. 14 15. 16 (75)
한국적 상황	1. 5 (15)	12 (8)		1. 10 (17)	
영미적상황	7. 8. 9. 11. 12(38)	10. 13 (15)	5. 8 (17)	2. 4. 5. 12(33)	3. 4. 11. 13 (25)

지금까지 5종 교과서의 본문내용을 보편적 상황, 한국적 상황, 영미적 상황으로 세분하고 그 반영 비율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통계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미문화에 대한 내용 전달에 있어서 각 교과서들간의 불균형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보편적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교학사 A는 어느정도 영.미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나, 태림출판사 발행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보다 단원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문화에 대한 내용 소개가 저조하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보편적 상황에서 그 상황은 학생들에 의해 자신의 문화로 이해되어, 마침내 호기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영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문화내용 전달을 위해서 영미문화소개가 교과서 전체 내용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외국어 교육목표 중 문화 교육적 측면의 중요성이 무시된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보다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부적합한 교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5종 교과서의 공통적 문제점인 영미문화 전달에 있어서의 학년간의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다.

출판사에 따라서 고학년일수록 영미문화 반영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으나, 특히 2학년인 경우에는 교학사A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영미문화에 대한 소개가 저조하다. 1학년때 한창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2학년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호기심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에서는 가능하면 각 학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문화내용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제 내용별 분석

교과서에 사용되는 주제를 편의상 9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7〉 주제 내용 분석(교과사 A)

(숫자는 Lesson , () 는 %)

주 제 \ 학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학 교 생 활	7. (8)		
일 상 생 활	1, 2, 3, 4, 5, 6, 8, 11 (62)	2, 5, 7, 8, 1, (38)	5, 8, 12 (23)
풍 습, 습 관	10. (8)	10. (8)	10. (8)
자 연 풍 물	9, 12 (15)	4, 11, 12 (23)	7. (8)
지리, 역사, 언어			1. 1. 6 (23)
과 학		9. (8)	
이 야 기	13 (8)	6, 12. (15)	11 (8)
사 고, 공 상			3 (8)
기 타		3 (8)	4, 9, 13 (23)

먼저 1, 2, 3 학년 교과서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일상생활의 소개는 줄어들고 풍습, 언어, 이야기등 비교적 고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2학년 교과서에는 Lesson 10. Gestures and Handshakes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쉽게 문화적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에 좀 더 많은 외국의 풍습, 습관에 대한 내용소개가 없는 것이 아쉽다.

〈표 8〉 주제 내용 분석(교학사 B)

(숫자는 Lesson, ()의 숫자는 %)

학년 주제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교생활	5, 6 (15)	1 (8)	6 (8)
일상생활	1, 2, 3, 4, 7, 8, 10(54)	2, 5, 9, 11, 13(38)	1, 4, 7, 8, 10, 12, 13(54)
풍습, 습관	12 (8)		3 (8)
자연, 풍물	9, 11 (15)	3, 12 (15)	9 (8)
지리, 역사, 언어			
과학			11(8)
이야기	13(8)	6, 7, 8 (23)	2, 5 (15)
사고, 공상			
기타		4, 10 (15)	

〈표 9〉 주제 내용 분석(동아출판사)

(숫자는 Lesson, ()의 숫자는 %)

학년 주제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교생활	1, 4, 6, (23)	1 (8)	2 (8)
일상생활	2, 3, 5, 8, 9, 11, 12, 13 (62)	2, 3, 5, 8, 10, 11, 13 (54)	1, 3, 4, 7, 8, (42)
풍습, 습관	7 (8)		12 (8)
자연, 풍물		4 (8)	
지리, 역사, 언어		9(8)	
과학			
이야기		6, 7 (15)	5, 6, 10(25)
사고			
기타	10(8)	12 (8)	9, 11(17)

〈표 10〉 주제 내용 분석(지학사)

(숫자는 Lesson, ()의 숫자는 %)

학년 주제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교생활		1, 2, 3, 8, (31)	
일상생활	1, 2, 3, 5, 6, 7, 8, 10, 11 13 (71)	4, 5, 6, 7, 9, 10, 13 (54)	1, 7, (17)
풍습, 습관			3, 4, 11(25)
자연, 풍물	4, 9, 14(21)		8 (8)
지리, 역사, 언어		11(8)	
과학			6, (8)
이야기		12 (8)	2, 5, 9, 12 (33)
사고, 공상			
기타	12(7)		10(8)

〈표 11〉 주제 내용 분석(태림출판사)

(숫자는 Lesson, ()의 숫자는 %)

학년 주제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학교생활	1, 16(13)	8, (6)	
일상생활	1, 2, 3, 4, 6, 9, 10, 11 12, 13, 14, 15 (75)	1, 3, 4, 5, 6, 7, 9, 10 13 (56)	5, 13, 15 (19)
풍습, 습관	5, 8 (13)	11(6)	2, 11 (13)
자연, 풍물			12, 16(13)
지리, 역사, 언어			1(6)
과학		16(16)	6 (6)
이야기		2, 14, 15(19)	3, 10(13)
사고, 공상			
기타		12(6)	4, 7, 8, 9, 14(31)

지금까지 5종교과서에 수록된 문화내용을 분석하였다. 모든 교과서의 제
한된 지면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상적 소재를 선택하여 소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음 도표는 교과서별 주제내용 반영율을 통계화한 것이다.

〈표 12〉 주제별 분석 통계

출판사 학년 주제	교학A(%)				교학B(%)				동아(%)				지학(%)				태림(%)			
	1	2	3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학교생활	8			2	15	8	8	10	23	8	8	13		31		10	13	6		6
일상생활	62	38	23	41	54	38	54	49	62	54	42	53	71	54	17	47	75	56	19	50
풍습, 습관	8	8	8	8	8		8	5	8	8		5			25	8	13	6	13	11
자연, 풍물	15	23	8	15	15	15	8	13		8		1	21		8	10			13	4
지리, 역사, 언어			23	8								3		8		3			6	2
과학		8		3			8	3							8	3		6	6	4
이야기	8	15	8	10	8	23	15	18		15	25	13		8	33	14		19	13	11
사고, 공상			8	3																
기타		8	23	10		15		5	8	8	17	11	7		8	5		6	31	12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본문내용의 구성체계나 서술방
식의 문제이다.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다른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의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장르에서는, 글의 짜임이 없이 단어와 문장만이 있을뿐 글의
주제는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글들은 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이나 처
음 가본 도시의 풍물을 묘사한 내용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글의 소재가 식
상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상황의 묘사'라는 글의 전개방식은 전혀 읽는 학

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몇시에 학교가서 무슨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무엇을 한다는 식의 내용은 중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보면, 영어권 문화를 소개하는 글, 우리문화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글, 과학과 공해문제에 관한 글,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글, 언어와 언어학습에 대해 언급한 글 등이다.

첫째, 영어권 문화를 소개한 글은 3학년 교학사A(Lesson 8. A Letter from Australia)와 2학년 지학사(Lesson 11. English, a World Language)에서 각각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문화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미국편향은 세계공용어로서의 영어학습이라기 보다는 강대국, 미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더구나 Los Angeles로 이민간 아저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큰 집, 큰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써 미국을 특징화시키거나 (교학사B. Lesson 10. Chang-suk Visits Los Angeles), 미국이 어느곳에서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생동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학사A. Lesson 9.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내용은 더욱더 미국에 대해 동경과 환상을 갖게 하고 미국문화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경시와 미국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외에는 미국도시에 대한 간략한 묘사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소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어권 문화의 身體言語나 13일의 금요일을 비롯한 숫자개념(태림출판사 3학년 Lesson 2. Good Numbers and Bad Numbers)등과 같이 언어 생활과 같이 관련된 영어권 문화의 생활양식, 사고방식들을 폭넓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겠다.

둘째,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글은 서울의 발전상, 한국의 날씨, 불국사, 석굴암, 잠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올림픽타운의 아름다움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피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재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글의 내용이 학생들의 인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한편, 한국과 영어권 문화를 역사와 전통, 연장자에 대한 유사성을 알게 하는데 도움은 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여 신선하고 통찰력있는 문화비교가 현재까지도 살아 숨쉬며 생동하는 문화로서 우리문화를 새롭게 인식함과 더불어 애착과 긍지를 갖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글은 교과서의 모든 글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특별히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란 목표를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자연보호와 공공정신, 민주주의와 질서, 정직 우정등의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당위의 주장이나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기 쉽다. 그러므로, 글이 딱딱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課가 삶에 대한 인식과 학생들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할애되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생활에서나 휴일을 보내는 방법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양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도시에 비해 농촌을 소외시키고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물질적 빈곤감과 열등의식을 갖게함으로써, 바른 가치관 형성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전기문을 보면 Troy를 발견한 실리만(교학사B. 3학년 Lesson 9. In Search of an Old City)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링컨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다룬 내용(태림출판사 3학년 Lesson 4. In the White House)과 70살이 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Anna Mary Moses(교학사 A 3학년 Lesson 11. She Painted Her Memory)의 이야기는, 학생들이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지 어떤 점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기문으로서의 의의가 충분히 살려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Anna Mary Moses의 경우처럼 몇살에 태어나서 몇살에 했다는 식의 연대기적 서술방식은 단순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감동도 흥미도 주지 못한다. 덧붙여서 전기문의 소재로서 학생들의 삶과 유리되어 박제된 영웅으로서 존재하는 인물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인물의 신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모든 교과서에 수록된 문화내용의 양적인 부족 및 학년간의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현재의 중학교 영어교과서는 첫째,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 도덕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둘째, 영어권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길러 주며, 셋째,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를 통하여 우리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우리문화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는 편견과 불합리한 판단을 버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세가지 틀에 비추어 볼때 미흡한 점이 많이 된다. 마구잡이 문화 내용 전달은 Rivers의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학습자들에게 잘못된 편견과 불합리한 판단을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다.

Poorly selected and badly arranged materials merely confirm prejudices and reinforce those stereotypes, or facile generalizations, about the speakers of the language which students have already acquired from less informed members of their own community.²²⁾

따라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많은 과제를 안게된다.

영어권의 문화와 우리문화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영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감동을 주면서 학습의 동기도 유발시키는 것, 나아가서 바람직한 영어교과서 내용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풀어나가야 하는 영어교육의 영킨 실타래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판적 시각으로서의 분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교과서와의 차이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발행된 검인정 교과서 중 SANSEIDO 출판사가 제작한 영어교과서의 내용부분을 기술하겠다.²³⁾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생활수준이 높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독특한 상황(분단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하면서, 발전 학습과 Let's Read를 포함한 단원별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고 내용별로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학년에서는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부분이 많고, 2,3학년에서는 외국문화 소개 부분이나 내용성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 Wilga M. Rivers(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336.

23)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한 영어교육」, 창간호, pp. 54-62.

내용 구성

단원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LESSON 1	ALPHABET	AUSTRALLA와 일본의 날씨 비교	봄이오는 상황묘사
LESSON 2	단어의구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와 비행기	U.N의 성립과 역할
LESSON 3	사물에 대한 소개	학교생활	외국인의 눈으로 본 일본인의 생활양식과 관습
LESSON 4	사물이름 익히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동화>	동남아시아<말레이지아, 싱가포르>인들의 인종과 생활습관
LESSON 5	사람에 대한 소개와 사물의 소유	일본의 지진	미국 독립전쟁의 발발 <보스톤 학살 사건>
LESSON 6	사람과 사물에 대한 소개와 대화	여선생님의 결혼 축하 잔치	크리스마스 선물 <O. HENRY의 단편소설>
LESSON 7	일상생활에 쓰이는 공구이름 소개	일본어의 구성소개 <KANJI, HIRAGA, NA. KA TAGANA>	여행을 통해 본 LONDON인의 생활모습과 질서의식
LESSON 8	일본어와 영어의 비교	학생들의 장래희망 <요리사와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야기>	의사전달의 방법과 다양성
LESSON 9	악기(GUITAR와 피리)를 다루는 내용	미국의 짠 호수 GREAT SALT LAKE에 대한 소개 <물이 짜서 수영을 못 하더라도 몸은 뜬다>	독이 든 향아리<스승이 없는 사이 꿀을 다 먹어치운 제자의 스승에 대한 재치있는 변명>
LESSON 10	시간과 요일(하루 일과 중심으로)	KENYA의 독립과 자연 경관<공원, 동물> 소개	유머감각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LESSON 11	영국에 있는 친구에 대한 소개	사람들 앞에 서서 의견을 말할 때의 자세나 마음가짐	외국인의 눈으로 본 일본인의 생활양식과 관습
LESSON 12	가정생활 소개<아버지, 어머니>	사람들 앞에 서서 의견을 말할 때의 자세나 마음가짐	(교재의 마지막이 Lesson 11)
LESSON 13	가족소개 <할아버지 할머니>	(교재의 마지막이 Lesson 12)	
LESSON 14	학교와 집과 도서관의 거리		
LESSON 15	PUZZLE<지구의공전>		
LESSON 16	미국의 위치, 언어 인종		

단원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발전학습 I	인사	마술을 하는 INDIAN 여인의 흉내를 내는 꼬마	QUIZZ <그림의 내용에 맞는 단어 골라 넣기>
II	숫자 <기수, 서수>	우리 몸의 각 기관이 하는 역할	오랫동안 높은 산에 박혀 햇볕을 볼 수 없는 마을사람들이 300년의 노력으로 산을 바다에 옮겨 놓음으로 후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
III	사람과 사물의 나이와 곱셈, 덧셈	색깔 소개	날씨를 나타내는 말
IV	12달		정수, 서수, 분수를 나타내는 말
LET'S READ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MARTON LUTHER KING 목사의 업적	언어의 중요성,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이다. <영국과 일본에 의해 언어를 빼앗겼던 WALES인과 한국인을 예를 들고 있다>

① 가정생활

1학년에서 3과, 2학년에서 1과가 가족소개 중심으로 가정생활이 묘사되어 있다. 60이 되신 할머니께서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신다. 부모님들은 모두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바쁠 때는 서로 돕는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남자 아이가 장래 희망으로 요리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 즉 남녀의 성에 따른 직업의 차이나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車가 없이 낡은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 아버지나 밤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류층 중심의 문화가 아닌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난다.

② 학교 및 사회생활

1학년에서 2과, 2학년에서 3과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제시 보다는 주로 일반적인 외적현상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혼잡한 도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공기가 맑지 못하고 운동장이 좁아서 야구를 할 수 없는 학교환경이나,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이나, 기차선로 주변의 심한소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생활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결혼하려는 여선생님을 위한 축하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언급되고 있는데, 학교생활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공부나 입시에 쫓겨가는 모습보다는 밝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 지는 듯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러한지는 판단할 수가 없겠다.

③ 문화 소개

우리의 교과서에 비해 일본 교과서는 일본과 외국의 자연경관이나 풍습 등에 대한 소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학년에서 1과, 2학년에서 4과, 3학년에서 5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외국문화의 소개 중 미국이 3과, 동남아시아, 영국, 호주, 케냐에 관한 내용이 각각 1과씩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미국문화 일색인 것을 생각해 볼때 다양한 외국문화의 소개는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올바른 인식과 주체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겠다. 일본교과서에는 그러한 시각에서 외국문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호주의 날씨와 일본의 날씨의 차이점을 기술하거나 영국의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들의 모습은, 일본 노인들 보다 더 외로워 보이고 손으로 식사를 하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주로 자연경관이나 날씨, 생활습관 등의 외적인 모습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미국의 모습은 각 주의 단결된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내용이라든가 미국의 지리적 위치, 언어, 인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문화에 대한 소개는 일본어의 구성이나 생활습관 특히, 공중 목욕탕 문화와 식사습관에 대해 쓰여져 있는데, 주로 일본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나타난다.

또한, U.N에서 일본어의 공용화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내용 속에서는 일본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엿볼 수 있다.

④ 교훈적인 내용

교훈적인 내용은 2학년에서 2과, 3학년에서 3과에 걸쳐 나타난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청중들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태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머 감각의 필요성, 의사전달의 다양한 방법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뿌리 깊은 병폐의 하나인 인종차별법에 대항하여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친 MARTIN LUTHER KING목사의 감동적인 삶이라든가 외세의 침략과 지배로 모국어의 사용을 금지당했던 식민지국가들의 상황을 제시하여, 언어는 곧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민족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⑤ 동화나 소설

동화나 소설은 2학년에서 1과, 3학년에서 3과에 걸쳐 소개되고 있다. 비

현실적인 내용으로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가장 진실되고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 제자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한 스님의 어처구니 없는 댓가지불과 제자들의 재치를 다룬 '독이 든 항아리', 현실에서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대를 이은 300년 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담고 있는 '300년 후' 등이 나타나 있다.

사계(Four Seasons)는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데, 교과서의 '사계'는 자연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의 생활을 담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는 "The Seasons"라는 같은 제목의 교재를 비교해 보았다.

MIDDLE SCHOOL ENGLISH 1 (교학사 A²⁴, Korea)



Spring is the season of flowers. It is warm in spring, and birds sing in the trees. We go on a picnic in May.

24) 심명호 외 3인(1991), *Middle School English 1*, 교학사 pp. 187-188.

Summer is the hot season. Trees, mountains and fields are green. We have much rain in summer. We often go to the lake and swim.



Fall comes after summer. It is cool in fall, and the sky is blue. We have lots of fruits in fall. The leaves have many colors. Mountains are beautiful in fall.

It is cold in winter. Trees do not have leaves. Snow falls from the sky. We often go to the lake and skate.



Ingles (Argentina)

"The Months-The Seasons-Holidays"

Do you like January and February, Louise?

Yes, I do; I like them very much. It's holiday time and we have no school, but it's very 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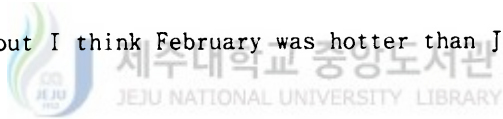
January and February are the hottest months of the year in our country. It is summer time. Summer is a season. How many seasons are there, Dick ?

There are four seasons :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 (중략)

Was it very hot last January ?

Yes, it was, but I think February was hotter than January.²⁵⁾



English 7 (Russia)

THE SEASONS

This is the season

When fruit is sweet;

This is the season

When school friends meet,

When noisy and gay,



25) 조석주(1978), 前掲書, p.61.

And brown in the sun,
With their books and bag,
To school they run.

This is the season
When mornings are dark,
And birds do not sing
In forest and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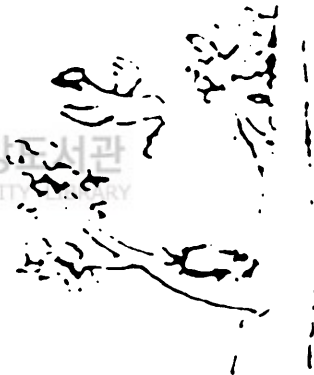
This is the season
When children ski,
And Father Frost
Brings the New-Year tree.

This is the season
When snowdrops bloom,
When nobody likes
To be in his room.

This is the season
When birds make their nests;

This is the season
We all like best.

This is the season



When nights are short,
When children are full
Of fun and sport;
Playing swimming
All the day
With a happy song,
On a sunny da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I. 영어 교과서 개편을 위한 제언

영어교사들은 현재의 교과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필자는 중학교 5종 교과서를 분석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대체 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구체적 내용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다. 먼저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인 사계(Four Seasons)의 내용을 미흡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글을 실어 보겠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읽기지도용으로 만들었는데 교과서의 「사계」 단원을 다룰 때 이용할 수 있겠다.

1. 사계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Four Seasons

In spring, it is warm. We go on a school picnic in April or May. The leaves on the tree are very small and green. Birds sing in trees. Everything enjoys spring.

Summer is a hot season. We enjoy swimming in the river, sea and swimming pool. We can eat many watermelons. Trees, mountains and fields are green. We have much rain. Sometimes we have typhoons. We enjoy the summer vacation for about a month.

Autumn is a colorful season. The leaves are red and yellow. We can

see pretty cosmoses here and there. The air is cool and the sky is blue and high.

In the country, farmers are busy. They gather new fruits and grains. We have Chu-sok with them.

Autumn is a good season for reading. We have many homeworks and examinations.

So we can't enjoy reading and autumn weather.

The last season of the year is winter. The nights are very long and it is very cold. We wear hats, gloves and coats.

Winter is a white season. We have much snow. We make a snowman and play snowballs. We can skate and sled.

A new year comes in January. We eat ddok-guk and get age one more. We have a long winter vacation. So we like winter.

☆☆☆ 학생들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

봄을 다루면서 소풍에 대해, 여름을 다루면서 장마·태풍과 수해문제, 여름방학에 대해, 가을을 다루면서 가을의 풍성함과 함께 농촌문제 (농가부채 등), 추석, 독서 등에 대해, 겨울을 다루면서 새해(설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

2) Comprehension Check

※ 본문의 내용과 같으면 T, 다르면 F를 쓰시오.

1. In summer, we have much rain. ()
2. We can enjoy reading in autumn. ()
3. In winter, the nights are very long. ()

※ 가장 알맞은 대답을 고르시오.

4. Autumn is a _____ season.
 (1) hot (2) white (3) green (4) colorful
5. Trees, mountains and fields are _____ in summer.
 (1) green (2) red (3) white (4) Yellow
6. Autumn is a good season for _____.
 (1) skating (2) reading (3) swimming (4) sledding

※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7. There are _____ summer, autumn and winter in a year.
8. In autumn , farmers are _____ .
9. A new year comes in _____ .

※ 각 계절에 관계되는 것들의 번호를 찾아 쓰시오.

보기 _____ (1) cool (2) warm (3) hot (4) cold (5) blue sky (6) snowman (7) small leaves (8) typhoon (9) cosmoses (10) swimming (11) gloves (12) new grains
--

10. 봄 - 2개 () () 11. 여름 - 3개 () () ()
12. 가을 - 4개 () () () () 12. 겨울 - 3개 () () ()

※ 4날말 중 나머지 3날말을 포괄할 수 있는 날말을 고르시오.

14. (1) season (2) autumn (3) summer (4) winter
15. (1) green (2) red (3) color (4) white
16. (1) swim (2) play (4) skate (4) sled
17. (1) hot (2) cold (3) warm (4) weather

2.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

대체 교과서 방향모색의 일환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과연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가'를 조사·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이유로 필자는 제주도 남자중학교 1개학교, 서귀포시 남자중학교 1개학교, 북제주군 여자 중학교 1개학교, 남제주군 남녀공학 1개중학교를 표집 선정하여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에게 22개의 묶음을 주고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를 1개씩 고르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

주제
① 우주여행, 우주의신비, 우주모험, 비행접시(UFO)
② 이솝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
③ 삼일운동, 우국지사이야기, 민족의슬기, 자연보호
④ '88서울올림픽, 한국의 석유탐사, 외국의자하철, 국제분쟁
⑤ 환경공해, 인구폭발, 식량위기, 교통란
⑥ 헬렌켈러, 링컨, 에디슨, 아문젠등
⑦ 세종대왕, 이순신, 이율곡, 안창호 등
⑧ 축구, 야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 등 운동 경기
⑨ 유전공학, 컴퓨터 공학, 해저 농장, 로봇트 산업
⑩ 추석, 설날, 단오절, 농악, 윷놀이
⑪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페스티발(축제)
⑫ 키신저, 레이건, 대처, 카터, 엘리자베스 여왕
⑬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투자, 신용 화폐의활용, 국가경제
⑭ 국제관광, 외국의풍물, 외국의 고적및명승지, 세계 주요 문화이해
⑮ 미생물의 세계, 해저도시개발, 남극의 광물탐사, 사막의 다목적 개발
⑯ 링컨의 연설문, 케네디 연설문, 맥아더 연설문, 처칠의 연설문
⑰ 외국인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 외국인을 관광지예 안내하기, 영어편지 쓰는 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
⑱ 신체의 구조및 기능, 인간수명, 건강유지방법, 암으로부터 해방
⑲ 캠핑과게임, 음악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연극)감상
⑳ 독서의 방법, 일기쓰기와 자기발전, 시, 문학작품 감상
㉑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
㉒ 국제 사회인으로서의 예의범절, 훌륭한 인간관계, 공중도덕준수 등

〈표 14〉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 반응 결과

주제	남				여				전체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1	57.9	67.5	70.7	65.4	41.2	31.8	47.9	40.3	52.9
2	64.0	72.5	66.7	67.7	78.4	84.1	89.8	84.1	75.9
3	37.7	32.5	40	36.7	28.4	22.7	31.6	27.6	32.2
4	43.9	46.3	30.7	40.3	25.5	18.2	17.3	20.3	30.3
5	35.1	52.5	46.7	44.8	32.4	47.7	35.7	38.6	41.7
6	39.5	37.5	34.7	37.2	47.1	45.5	59.2	50.6	43.9
7	46.5	46.3	61.3	51.4	46.1	33.0	60.2	46.4	48.9
8	76.3	66.3	65.3	69.3	40.2	54.5	57.1	50.6	60.0
9	72.8	61.3	66.7	66.9	33.3	28.4	26.5	29.4	48.2
10	39.5	48.8	34.7	41.0	53.9	55.7	68.4	59.3	50.2
11	26.3	23.8	22.7	24.3	33.3	58.0	58.2	49.8	37.1
12	23.7	26.3	16.0	22.0	35.3	28.4	33.7	32.5	27.3
13	25.4	28.8	21.3	25.2	31.4	8.0	8.2	15.9	20.6
14	35.1	41.3	46.7	41.0	58.8	58.0	45.9	54.2	47.6
15	57.0	56.3	41.3	51.5	39.2	26.1	23.5	29.6	40.6
16	30.7	27.5	45.3	34.5	30.4	30.7	27.6	29.6	32.1
17	67.5	57.5	66.7	63.9	88.2	93.2	79.6	87.0	75.5
18	64.9	62.5	52.0	59.8	37.3	40.9	27.6	35.3	47.6
19	71.9	63.8	58.7	64.8	71.6	94.3	80.6	82.2	73.5
20	26.3	35.0	42.7	34.7	65.7	72.7	58.2	65.5	50.1
21	15.8	13.8	14.7	14.8	13.7	11.4	21.4	15.5	15.2
22	43.9	45.0	46.7	45.2	56.9	53.4	39.8	50.0	47.6

〈 표14 〉 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로써,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⑧ 축구, 야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등 운동경기'로서 76.3%학생이 선택하였고, 두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은 ' ⑨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해저공학, 로봇산업'등으로서 72.8%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세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은 '⑬ 캠핑과 게임, 음악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

술감상, 영화(연극)감상' 등으로서 71.9%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반면에,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로서 가장 인기없는 주제는 '㉔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였으며 15.8%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두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㉓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 투자, 신용화폐의 활용, 국가 경제' 등으로서 25.4%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였다. 세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㉑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페스티발(축제), ㉒ 독서의 방법, 일기쓰기와 자기발견, 시, 문학작품 감상' 등으로서 26.3%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이 '㉒이솝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 설화' 등으로 72.5%의 학생들이 택했으며, 2위는 '㉑우주여행, 우주의 신비, 우주모험, 비행접시(U.F.O)' 등으로 67.5%의 학생들이 택했고, 3위는 '㉘축구, 야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등 운동 경기'로서 66.3%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반면에, 가장인기없는 주제는 '㉒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였으며 13.8%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였다. 두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㉑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페스티발(축제)'로서 23.8%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였다. 세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㉒ 키신저, 레이건, 대처, 카터, 엘리자베스 여왕', 등으로서 26.4%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㉑우주여행, 우주의 신비, 우주모험, 비행접시(U.F.O)'로서 70.7%의 학생들이 선택하였고, 2위는 '㉒이솝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와 '㉙유전공학, 컴퓨터공학, 외국인을 관광지에 안내하기 영어편지 쓰는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 등으로서 66.7%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3위는 '㉘ 축구, 야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등 운동경기'로서 65.3%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반면에, 가장 인기 없는 주제는 '㉑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 등을 이해하기'였으며 14.7%의 학생들이 선택했고, 두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㉒ 키신저, 레이건, 대처, 카터, 엘리자베스 여왕',으로서 16.0%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였다. 세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㉓ 한국 경제의 미래 저축과 투자 신용화폐의 활용, 국가 경제' 등으로서 21.3%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이상에서 남학생들이 학년에 따라서 택하는 주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이 택한 3위까지의 주제중 일치하는 것은 '⑧, ①, ②, ⑨'로서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운동이나 우주, 유전공학 등임을 알 수 있다.

< 표14 > 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로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㉑ 외국인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 외국인을 관광지에서 안내하기, 영어로 편지쓰는 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로서 88.2%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2위는 '㉒ 이솝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로서 78.4%의 학생들이 택했고, 3위는 '㉓ 캠핑과 게임, 음악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연극)감상'으로서 71.6%의 학생들이 택했다.

반면에,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로서 가장 인기가 없는 주제는 '㉑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로서 13.7%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였다. 두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㉒ 올림픽 한국의 석유탐사, 외국의 지하철, 국제분쟁'으로서 25.5%의 학생들만이 택했다. 세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㉓ 삼일운동, 우국지사 이야기, 민족의 슬기, 자연보호' 등으로서 28.4%의 학생들만이 선택하였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㉑ 캠핑과 게임, 음악 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연극)감상'으로서 94.3%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2위는 '㉒ 외국인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 외국인을 관광지 에 안내하기, 영어편지쓰는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로서 93.2%의 학생 이 선택하였다. 3위는 '㉓ 이솝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 로서 84.1%의 학생이 선택했다.

반면에, 가장 인기없는 주제는 '㉔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 투자, 신용화 폐의 활용, 국가경제'로서 8%의 학생만이 선택하였다. 두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㉕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로서 11.4%의 학생만이 선택했다. 세번째로 인기없는 주제는 '㉖ 삼일운동, 우국 지사 이야기, 민족의 슬기, 자연보호'로서 22.7%의 학생만이 택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주제는 '㉗ 이솝우화, 탈무드, 속 담과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로서 89.8%의 학생들이 선택했다. 2위는 '㉘ 캠핑과 게임, 음악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연극)감상' 등으로 서 80.6%의 학생들이 선택했다.

3위는 '㉙ 외국인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 외국인을 관광지에 안내하 기, 영어 편지 쓰는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로서 79.6%의 학생들이 선 택했다.

반면에, 가장 인기 없는 주제는 '㉚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 투자, 신용 화폐의 활용, 국가경제'로서 8.2%의 학생들만이 선택했다. 두번째로 인기없 는 종목은 '㉛ 올림픽 한국의 석유탐사, 외국의 지하철, 국제분쟁'으로서 17.3%의 학생만이 선택하였다. 세번째로 인기없는 종목은 '㉜ 신앙생활의 의 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로서 21.4% 학생만이 선택했

다. 특이한 사실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택한 3위까지의 주제가 모두 일치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택한 3위까지의 주제가 순서가 바뀌었을 뿐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택한 3위까지의 주제중 일치하는 것은 '②, ⑰, ⑱' 세 개뿐이다.

이상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를 학년별, 남녀별로 살펴 보았는데 남녀별로 교과서를 별도로 편성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참작하여 소재를 구성하면 보다 흥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에는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의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그 반응의 결과를 '절대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반대도 아니다', '반대이다', '절대반대이다'의 5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한 반응 결과

주제
① 우주여행, 우주의신비, 우주모험, 비행접시(UFO)
② 이습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
③ 삼일운동, 우국지사이야기, 민족의슬기, 자연보호
④ '88서울올림픽, 한국의 석유탐사, 외국의자하철, 국제분쟁
⑤ 환경공해, 인구폭발, 식량위기, 교통란
⑥ 헬렌켈러, 링컨, 에디슨, 아문젠등
⑦ 세종대왕, 이순신, 이율곡, 안창호 등
⑧ 축구, 야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 등 운동 경기
⑨ 유전공학, 컴퓨터 공학, 해저 농장, 로봇트 산업
⑩ 추석, 설날, 단오절, 농악, 윷놀이
⑪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페스티발(축제)
⑫ 키신저, 레이건, 대처, 카터, 엘리자베스 여왕
⑬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투자, 신용 화폐의활용, 국가경제
⑭ 국제관광, 외국의풍물, 외국의 고적및명승지, 세계 주요문화 이해
⑮ 미생물의 세계, 해저도시개발, 남극의 광물탐사, 사막의 다목적 개발
⑯ 링컨의 연설문, 케네디 연설문, 맥아더 연설문, 처칠의 연설문
⑰ 외국인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 외국인을 관광지에 안내하기, 영어편지 쓰는 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
⑱ 신체의 구조및 기능, 인간수명, 건강유지방법, 암으로부터 해방
⑲ 캠핑과게임, 음악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연극)감상
⑳ 독서의 방법, 일기쓰기와 자기발전, 시, 문학작품 감상
㉑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
㉒ 국제 사회인으로서의 예의범절, 훌륭한 인간관계, 공중도덕준수 등

(표 15) 반응 결과(중학교 1학년 남학생)

주 제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반대도아니다	반대이다	절대반대이다
①	27.1	35.6	11.9	13.6	11.9
②	39.8	31.4	22.0	3.4	3.4
③	27.1	24.6	31.4	5.9	8.5
④	20.3	28.8	23.7	15.3	11.9
⑤	23.7	25.4	24.6	18.6	8.5
⑥	28.8	32.2	26.3	5.9	6.8
⑦	33.1	28.0	22.0	9.3	4.2
⑧	54.2	31.3	10.1	1.7	5.0
⑨	46.6	30.5	14.4	5.0	1.7
⑩	22.9	28.0	35.6	7.6	5.9
⑪	16.9	28.0	28.8	14.4	12.7
⑫	16.1	20.3	33.9	18.6	11.0
⑬	17.8	17.8	32.2	16.1	16.9
⑭	22.9	28.8	24.6	14.4	10.1
⑮	32.2	29.7	19.5	11.0	8.5
⑯	13.6	26.3	22.9	7.6	30.5
⑰	57.6	23.7	12.7	5.0	2.5
⑱	50.0	27.1	16.1	2.5	5.0
⑲	54.2	25.4	13.6	4.2	3.4
㉔	14.4	21.1	30.5	14.4	20.3
㉕	8.5	15.3	26.3	18.6	29.7
㉖	16.9	31.3	26.3	11.0	13.6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에게 절대 찬성율이 가장 높은 것은 ⑧과 ⑱항이 54.2%, 그 다음은 ⑧항이 46.6%이다. 반면에 '절대반대이다'에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주제는 '⑯링컨의 연설문, 케네디의 연설문, 맥아더 연설문, 처칠의 연설문', 그 다음은 '㉕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로 나타났다.

〈표 16〉 반응 결과(중학교 1학년 여학생)

주 제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반대도아니다	반대이다	절대반대이다
①	14.3	39.0	34.3	7.6	5.7
②	44.8	49.5	3.8	1.0	1.9
③	12.4	41.0	38.1	6.7	1.9
④	11.4	33.3	25.7	25.7	4.8
⑤	17.1	30.5	30.4	19.0	6.7
⑥	26.7	45.7	22.9	5.7	0.0
⑦	26.7	48.6	19.0	5.7	1.0
⑧	31.4	31.4	22.9	10.5	5.7
⑨	13.3	32.4	39.0	10.5	6.7
⑩	25.7	47.6	19.0	1.9	2.9
⑪	18.1	36.2	27.6	12.4	6.7
⑫	13.3	29.5	37.0	13.3	5.7
⑬	7.68	35.2	33.3	17.1	8.6
⑭	29.5	41.0	19.0	10.5	2.9
⑮	22.9	34.3	28.6	14.3	1.0
⑯	12.4	31.4	32.4	19.0	5.7
⑰	67.6	24.3	2.9	2.9	1.9
⑱	27.6	31.4	30.5	6.7	1.9
⑲	52.4	32.4	13.3	2.9	1.9
㉔	31.4	48.6	20.0	1.9	3.8
㉕	7.6	15.2	41.0	21.9	8.6
㉖	26.7	45.7	24.8	1.9	1.0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에게 절대 찬성율이 가장 높은 것은 ⑰ 항목으로 67.6%, 그 다음은 ② 항목으로 44.8%이다. 반면에 '절대반대이다'에서 가장 높은 반영율을 보인 주제는 ⑬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투자, 신용화폐의 활

용, 국가경제'와 '㉑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로 나타났다.

〈표 17〉 반응 결과(중학교 2학년 남학생)

주 제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반대도아니다	반대이다	절대반대이다
①	41.9	28.4	14.8	7.4	7.4
②	44.4	35.8	7.4	6.2	6.2
③	16.0	27.2	28.4	14.8	13.6
④	23.5	25.9	22.2	12.3	16.0
⑤	28.4	21.0	21.0	14.8	14.8
⑥	24.7	29.6	24.7	11.1	9.9
⑦	23.5	44.4	17.3	8.6	6.2
⑧	39.5	34.6	16.0	4.9	4.9
⑨	35.8	32.1	18.5	4.9	8.6
⑩	25.9	33.3	25.9	4.9	11.1
⑪	8.6	27.2	33.3	14.8	16.0
⑫	9.9	8.5	35.8	17.3	18.5
⑬	14.8	27.2	27.2	14.8	14.8
⑭	14.8	23.5	28.4	18.5	11.1
⑮	34.6	27.2	17.3	12.3	8.6
⑯	17.3	13.6	29.6	19.8	19.8
⑰	34.6	30.9	16.0	6.1	14.8
⑱	34.6	27.2	17.3	8.6	11.1
㉑	40.0	25.9	17.3	8.6	9.9
㉒	14.8	24.7	28.4	17.3	17.3
㉓	7.4	9.8	25.9	25.9	29.6
㉔	22.2	19.8	28.4	17.3	12.3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에게 절대 찬성율이 가장 높은 주제는 ② 이습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로 44.4%, 그 다음은 ① 우주

여행, 우주의신비, 우주모험, 비행접시(U.F.O)’로서 41.9%의 반응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절대반대이다’에서 가장높은 반응율을 보인 주제는 ‘㉑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 그 다음은 ‘㉒ 링컨의 연설문, 케네디의 연설문, 맥아더 연설문, 처칠의 연설문’으로 나타났다.

〈표 18〉 반응 결과(중학교 2학년 여학생)

주	반응구분(%)				
	절대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반대도아니다	반대이다	절대반대이다
①	9.8	29.3	31.5	15.7	15.7
②	40.2	43.4	15.2	3.2	3.3
③	4.3	30.4	38.5	13.6	11.6
④	4.4	14.1	48.2	19.0	18.0
⑤	19.6	33.7	28.7	10.3	7.3
⑥	19.6	53.2	35.6	2.2	5.4
⑦	22.8	33.7	33.5	7.3	8.7
⑧	17.4	44.6	34.7	9.6	7.6
⑨	9.8	20.7	35.9	13.6	16.6
⑩	21.7	41.3	32.2	3.0	1.0
⑪	29.3	32.6	21.4	9.3	7.6
⑫	10.9	18.5	42.7	16.0	14.8
⑬	2.2	14.1	37.5	31.1	20.1
⑭	20.7	20.7	31.7	17.5	10.5
⑮	12.7	23.9	30.3	21.8	13.8
⑯	14.1	15.2	31.1	19.8	15.8
⑰	47.8	30.4	7.3	23.8	4.0
⑱	14.1	31.5	23.0	17.0	16.0
㉑	41.3	39.1	8.3	1.0	2.2
㉒	31.5	32.6	22.8	10.9	8.7
㉓	4.3	14.1	29.5	22.0	22.0
㉔	16.3	27.7	37.1	6.3	6.3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에게 절대 찬성율이 가장 높은 주제는 '㉑ 외국인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 외국인을 관광지에서 안내하기, 영어편지쓰는 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47.8%, 그 다음은 '㉒ 캠핑과 게임, 음악 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감상'이 44.3%이다. 반면에 '절대 반대이다'에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주제는 '㉓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 그 다음은 '㉔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 투자, 신용화폐의 활용, 국가경제'로 나타났다.

〈표 19〉 반응 결과(중학교 3학년 남학생)

주 제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반대도아니다	반대이다	절대반대이다
①	34	26	16	13	5
②	42	29	8	8	5
③	14	28	22	22	17
④	12	25	22	19	16
⑤	20	28	18	14	13
⑥	8	34	23	12	16
⑦	37	32	11	6	8
⑧	42	22	18	9	4
⑨	28	22	20	14	11
⑩	17	25	25	16	9
⑪	10	21	32	14	14
⑫	8	17	34	18	17
⑬	13	16	21	27	16
⑭	16	31	22	9	14
⑮	18	26	21	16	12
⑯	23	25	16	15	14
㉑	31	31	12	7	13

⑮	28	33	11	12	8
⑯	36	32	16	7	12
⑰	12	20	25	19	16
⑱	7	7	26	24	28
㉔	14	28	26	10	13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에게 절대 찬성율이 가장 높은 주제는 '② 이솝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 와 '⑧ 축구, 야구, 테니스, 탁구등 운동경기' 로 42%, 그 다음은 '⑦ 세종대왕, 이순신, 이율곡, 안창호 등' 이 37% 이다. 반면에 '절대반대이다' 에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인 주제는 '㉔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 그 다음은 '③ 삼일운동 우국지사이야기, 민족의 슬기, 자연보호' 로 나타났다.



〈표 20〉 반응 결과(중학교 3학년 여학생)

주 제	반 응 구 분 (%)				
	절대찬성이다	찬성이다	찬성도반대도아니다	반대이다	절대반대이다
①	12.3	38.6	24.6	16.7	7.0
②	45.6	41.2	7.9	1.8	1.8
③	15.8	39.5	27.2	10.5	6.1
④	7.9	23.7	31.6	26.3	13.2
⑤	20.1	32.5	26.3	12.3	7.9
⑥	28.1	44.7	12.3	10.5	2.6
⑦	33.3	36.0	19.3	7.9	2.6
⑧	24.6	35.1	29.9	12.3	1.8
⑨	8.8	23.7	20.0	32.5	14.9
⑩	27.2	43.0	23.7	7.9	0.0

⑪	23.7	35.1	25.4	13.2	1.8
⑫	10.5	21.1	24.6	29.0	13.2
⑬	6.1	10.5	23.7	36.0	22.8
⑭	18.4	30.7	24.6	17.5	14.2
⑮	5.2	21.1	28.1	31.6	8.8
⑯	16.7	15.8	19.3	31.6	16.7
⑰	50.9	33.3	10.5	7.0	1.8
⑱	11.4	22.8	21.9	29.0	10.5
㉑	47.4	28.1	14.9	7.9	1.8
㉒	29.8	33.3	24.6	12.3	0.0
㉓	10.5	13.2	26.3	29.9	19.3
㉔	19.3	28.1	30.7	15.8	15.3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에게 절대 찬성율이 가장 높은 주제는 '⑰ 외국인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방법, 외국인을 관광지에서 안내하기, 영어편지 쓰는 법, 외국인 식당에서 식사하기' 로 50.9% , 그 다음은 '㉑ 캠핑과 게임, 음악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연극)감상' 으로 47.4 % 이다. 반면에 '절대반대이다' 에서 가장높은 반응율을 보인 주제는 '㉒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카톨릭), 회교 등을 이해하기', 그 다음은 '⑯ 링컨의 연설문, 케네디의 연설문, 맥아더 연설문, 처칠의 연설문' 으로 나타났다.

VII. 결 론

이상에서 중학교 영어 5종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외국문화 소개에 있어서의 양적인 부족함과 각 교과서별 및 학년간의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외국문화를 소개하는데 있어서 몇몇 제한된 주제의 중복성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의 역사, 문화적, 예술적 업적 위주의 과거 지향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국민의 참 삶의 모습을 재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교육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과서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들의 문화와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켜 우리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와 내용 전개 방식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때 영어 교과서는 첫째,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둘째, 영어권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길러주며, 셋째,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다양하고 폭넓은 소재를 통하여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영어권 문화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판단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한다.

날마다 영어교과서를 대하면서 이런저런 불만을 누구나 갖게 마련이지만, 그것이 단지 불평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겠다. 누구보다도 영어 교육에 가장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먼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체 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1991), “문화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교육”,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수언(1989),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연구」, 한신문화사.
- 김성중(1987), “외국어 교육과 문화지도” 「논문집」, 제20집, 청주사범대학.
- 김인숙외 2인(1988), *Middle School English 1, 2, 3*, 태림출판사.
- 나건석(1988),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주)동아출판사.
- 남기심, 이정민, 이홍배(1983), 「언어학 개론」, 탐출판사.
- 박명석(1979), 「동과 서 : 그 의식구조의 차이」, 탐구당.
- 박상옥(1982), “문화교육의 의의와 방법의 문제점”, 「영어교육」 제23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1987),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화지도”, 「논문집」, 제17호, 홍익대학교.
- 박순복(1988), “고교 영어교재의 문화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형기(1982), “영어교육의 입장에서 비교한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특성”, 「영어교육」 제23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신기철, 신용철(1981),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신용진(1985), 「영어교육공학 I」, 준지각.
- 심명호외 3인(1990), 「*Middle School English 2-Teacher's Guide*」, 교학사.
- (1991), *Middle school English 1, 2, 3*, 교학사.
- 연구보고(1986),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연구”, 정민사.
-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1990), 「참영어교육 5」.
- 유무근(1980), “외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의 문제”, 「영어교육」 제20호, 한국영어교육학회.

- 조석주(1978), “바람직한 영어교과서상”, 『어학교육』, 제9집
- KBS문화사업단(1992), 「굿모닝팝스」, 3, 4, 6월호.
- 홍보업외 2인(1989), *Middle School English 1, 2, 3*, 교학사.
- 홍익표외 3인(1989),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지학사.
- Brooks, Nelson(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1968),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1*.
- Brown, H. Douglas(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Chastain, Kenneth(1976), *Developing Second-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Davis, Flora(1988), “How to Read Body Language”, *New Readings in English*, Seoul: Shinasa.
- Genzel, Rhona B. & Martha Graves Cummings (1986), *Culturally Speak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Hendon, Ursula S. (1980), “Introduc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Vol.13, No.3.
- Jespersen, Otto(1956),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Joiner, Elizabeth G. (1974), “Evaluating the Cultural Content of Foreign Language Texts”, *Modern Language Journal* 56.
- Klopf, Donald W. & Myung-Seok Park(1982),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s*, Seoul: Han Shin Publishing Co.
- Lado, Robert(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1964),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Inc.

- Pae Young-Ja(1981), "A Cultural Syllabus for Korean Students", *English Teaching*, No.22, Seoul : The Colleg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 Park, Myung-Seok(1979),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 Korean and American*, Seoul : Han Shin Publishing co.
- Rivers, Wilga M. (196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nd edition, 1981).
- Seelye, H. Ned. (1985), *Teaching Culture*, Illinois : National Textbook Company.
- Zanger, Virginia Vogel(1985), *Face to Face*, Cambridge : Newbury House Publishers.



〈Abstract〉

An Analysis of Cultures Mentioned In Middle School English Books

Ko, Jeong - ryol

English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Un-tae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not only to compare and analyze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and but also to discove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effectively mentioned in Middle School English Books.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th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has widely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goal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So true communication in English is possible only after we have learned the cultural implications in speech as well as the linguistic skills of English - speaking people. Especially, since innumerable differences are to be found between Korean and America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November, 1992.

Cultural features, one can never deny the importance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in English education.

In this study, I have attempted to compare systematically ways of thinking, ways of living, the customs, and the proverb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From such pedagogical point of view, some textbooks currently us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re analyzed as lacking many lessons of cultural interests.

In conclusion, keeping in mind that the true sense of English learning is achieved through understanding the cultural background in which the language is uttered, English teachers should make an effort to teach the contents based on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choose the relevant passages from any lessons at hand in the given textbooks and explicate the hidden cultural meaning to students.

부 록

중학교 학생들의 “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 ” 측정을 위한 설문지

연구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영어로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으며 모두 숫자로 통계처리 되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
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사항 중에서 해당된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1. 응답자의 성별 : ① 남 ② 여
2. 응답자의 학년 : 중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응답자의 학교소재지 : ① 시 ② 읍 ③ 면
4. 영어 교과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어 상용 국민의 문화를 어
느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완전히 ② 거의 모두 ③ 거의 못한다. ④ 전혀 못한다.

◎ 다음 문항을 읽고 5개의 보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에 V표를 해주십시오.

● 다음의 주제를 영어교과서에 포함시키려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 주제 〉	절대	찬성도	절대
	찬성이다	반대도	반대이다
① 우주여행, 우주의 신비, 우주모험, 비행접시(U. F. 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이솝우화, 탈무드, 속담과 격언, 교훈적인 전래설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삼일운동, 우국지사이야기, 민족의 슬기, 자연보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올림픽, 한국의 석유탐사, 외국의 지하철, 국제분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환경공해, 인구폭발, 식량위기, 교통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헐렌켈러, 링컨, 에디슨, 아문젠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세종대왕, 이순신, 이울곡, 안창호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 축구, 야구, 테니스, 태권도, 탁구 등 운동경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해저농장, 로봇트 산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⑩ 추석, 설날, 단오절, 농악, 윷놀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⑪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페스티발(축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⑫ 키신저, 레이건, 대처, 카터, 엘리자베드 여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⑬ 한국경제의 미래, 저축과투자, 신
용화폐의 활용, 국가경제. |_|_|_|_|_|_|_|
- ⑭ 국제관광, 외국의 풍물, 외국의 고
적 및 명승지, 세계주요 문화이해. |_|_|_|_|_|_|_|
- ⑮ 미생물의세계, 해저도시개발, 남극
의 광물탐사, 사막의 다목적개발. |_|_|_|_|_|_|_|
- ⑯ 링컨의 연설문, 케네디의 연설문,
맥아더 연설문, 처칠의 연설문. |_|_|_|_|_|_|_|
- ⑰ 외국인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방
법, 외국인을 관광지에서 안내하기,
영어편지 쓰는법, 외국인 식당에
서 식사하기. |_|_|_|_|_|_|_|
- ⑱ 신체의 구조 및 기능, 인간수명,
건강 유지방법, 암으로부터 해방. |_|_|_|_|_|_|_|
- ⑲ 캠핑과 게임, 음악감상, 꽃꽂이,
우표수집, 미술감상, 영화, (연
극)감상. |_|_|_|_|_|_|_|
- ⑳ 독서의 방법, 일기쓰기와 자기발
견, 시, 문학작품 감상. |_|_|_|_|_|_|_|
- ㉑ 신앙생활의 의미, 불교, 기독교
(카톨릭), 회교등을 이해하기. |_|_|_|_|_|_|_|
- ㉒ 국제사회인으로서의 예의범절,
훌륭한 인간관계, 공중도덕 준수. |_|_|_|_|_|_|_|

○ 위의 22개의 주제 묶음 중에서 여러분이 꼭 영어로 배우고 싶
은 주제를 10개씩만 골라 그 번호를 써 주십시오.